



“공천심사 성역 없다...물같이폭 50% 될 수도” 박재승 ‘쇄신의 칼’ 뽑나

孫대표에게도 공심위 명단 안 밝혀

통합민주당(가칭) 공천의 칼자루를 전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강단있는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그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 지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취임 일선으로 손학규 대표에게 공심위 외부인사 인선 전권을 넘겨달라며 배수진을 치는가 하면 특유의 ‘단답형’ 어투로 공천혁명에 대한 소신발언을 쏟아내 당 안팎에서 “박 위원장의 손에 목숨이 달려 있다”, “박 위원장의 칼끝만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”는 말이 나올 정도.

‘공천특검’이라는 별칭을 얻은 박 위원장은 14일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, “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가 될 것이고, (공천 탈락자들에게) 재앙이 될 수도 있겠지만 행운이 될 수도 있다. 어쨌든 과거와

는 달라야 한다”며 공천쇄신 의지를 재확인했다. 물같이 폭과 관련, 그는 “30%가 될 수도 있고 50%가 될 수도 있고 10%가 될 수도 있다”며 “국민의 뜻이 기준이며, 국회의원의 본분인 국가경영 철학에 맞지 않는 행동은 안하는 사람이라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박 위원장은 이미 설 연휴 자신이 전권을 갖고 있는 공심위 외부인사 인선을 사실상 일단락하고 공천 기준 마련에 대한 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. “나와 코드가 맞는 공심위원을 인선하겠다”고 공언한 박 위원장은 손 대표에게조차 명단을 넘기지 않을 정도로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.

외부인사(7명)에는 법조인, 학계, 시민사회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. 구체적 리스트는

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당내 인사 5명(대통합민주당 2명+민주당 3명)에 대해서는 신당과 민주당이 막판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. 신당의 경우 신계를 사무총장이 공정성 보장을 위해 당연직 공심위원 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중이라는 얘기도 있다.

신당 일각에서는 박 위원장이 이미 7~9개 정도의 공천기준 가다듬기에 들어갔다는 미확인 소문마저 나돌고 있다.

박 위원장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심위에 공천 전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현행 당규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.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가 공심위 결정을 원안 그대로 인준,의결하도록 하되, 이견이 있을 경우 최고위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당규 개정을 추진중이다.

그는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측 박지원 실장, 김홍업 의원 등의 공천에 대해서도 “공천 원칙과 방침에서 전혀 의의가 없다”며 성역없는 공천쇄신을 강조한 바 있다. /연남뉴스

공천경쟁 우위 선점하라

총선후보들 지지선언 잇따라

4·9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후보들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. 특히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는 시·구의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세력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타 후보와의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앞다퉈 지지선언을 쏟아내려 한다.

손학규 광주시의회 의원과 조영택 동구의회 의장 등 동구 지역 시·구의원 8명은 15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통합 민주당 박준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할 계획이다. 이들은 “박 후보야말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폐지 및 조선대 로스쿨 탈락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후보”라고 주장했다.

이에 앞서 유재신 광주시의회 의원과 이준열 광산구의회 부의장 등 광산 지역 시·구의원 4명은 14일 광산에 출사표를 던진 이용섭 전 건교부 장관 지지를 선언했다. 이들은 선거구 분구가 확정적인 광산 철단 지역 소속 의원들이다. 이들은 “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·구의원으로서, 이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이번 선택은 지역민의 뜻과 의지를 반영한 것”이라며 “이 후보는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과학교 이진 및 과학원화부신설 등 지역 현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판단된다”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.

또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염동연 의원은 14일 조영택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, “불출마는 하지만 투혼을 살려 조 후보를 지원할 것”이라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. 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어제의 친구·동지...오늘은 공천 맞수

■광주·전남 총선 이색 대결

정치인들의 얽히고 설켜진 사연은 선거 때마다 화제거리다. ‘정치에는 영원한 적도, 동지도 없다’는 말처럼 학연·지연 등 각종 ‘인연’으로 얽힌 후보들이 18대 총선에서도 한판 승부를 겨뤄야 한다.

◇친구, 선·후배 간 대결=통합민주당 광주 북을 공천 경쟁을 벌이는 현역 김태홍 의원과 김용여 전 광주시의원·임내현 전 광주고검장 등은 모두 학교 동문이다.

김 전 시의원과 임 전 고검장은 광주 서중 동고다. 김 전 시의원은 광주일고 47회로, 35회인 김태홍 의원의 후배가 된다. 김 의원과 임 전 고검장의 관계도 남다르다. 김 의원은 임 전 고검장의 형인 임내규 전 산업자원부 차관과 지난 17대 총선에서 경쟁을 하기도 했다.

학교 동문·선·후배 얽히고 설켜

당이 다른데다 임 전 차관이 공천에서 탈락, 본선에서 맞붙지는 않았지만 경위야 어쨌건 김 의원이 당선된 만큼 임 전 고검장은 형의 설욕전, 김 의원은 지명방어전에 나서는 형국이다.

북갑에서 일전을 앞둔 김동진 전 국방장관(일고 35회)과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(46회), 조기선 변호사(50회)도 일고 선·후배 사

이다.

◇수성(守城)이나, 옥신상담(玉薪嘗膽)이나=장흥·영암 지역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유인학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되면서, 대타로 나선 유선호 의원이 전락 공천을 받아 당선된 곳이다. 이번 총선에선 유 전 의원이 또다시 공천경쟁에 뛰어들면서 ‘굴러온 돌’과 ‘박힌 돌’의 결전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.

굴러온 돌이나 박힌 돌이나

◇협력자, 정치 선배가 맞수= 남구의 강운태 전 장관과 김화진씨의 인연은 지난 16대 총선으로 거슬러올라간다.

김씨는 당시 강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 때 형사처벌까지 무릅쓰고 선거운동을 돕는 등 오랜 인연을 가져왔다. 하지만, 강 전 장관의 당선 이후 김씨는 지방선거 시의원 경선에서 떨어지면 서둘러 사퇴하겠다고 했다.

17대 총선에서 경쟁자로 나섰고, 18대 총선도 김씨가 공천을 통과하면 본선에서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강 전 장관과 경쟁을 벌일 처지다.

북을 지역 이형석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재균 전 청장의 경우 이 전 비서관이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북구청장에 출마했을 때 김 전 청장이 당내 경선에서 적극 지원하는 등 정치적 동반자 관계에서 맞수로 바뀐 케이스다. 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강운태 “직장여성 위한 보육정책 마련해야”

4·9 총선 현장

유종필, 서구청장·구의원과 간담회



○...강운태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4일 프라도호텔에서 열린 남구 보육시설(법인) 정기총회에서 올바른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강조, 강 후보는 “최근 복지정책 예산이 축소,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”며 “직장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이 마련돼야 한다”고 주장.



○...유종필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15일 서구청장 및 구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할 예정이다. 유 후보는 이날 정책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 및 숙원 사업,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.

임현모, 선거사무실 개소 ‘세족식’ 눈길



○...임현모 광주 북갑 예비후보가 14일 북구 말바루 사거리 인근에 선거사무실을 열고 표밭갈이를 본격화, 광주교육대 총장이기도 한 임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역 어르신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‘세족식’을 가져 눈길.

정용화, 서구 지역현안 의견 교환



○...정용화 한나라당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14일 서구청을 방문, 전주인 서구청장과 만나 공군 탄약고 부지 이전·세화지구 개발 등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, 정 후보는 이날 “국회에 입성, 서구청이 최근 건설교통부에 사업비를 신청한 ‘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”고 약속.

김영록, 통합민주당 입당 총선 행보



○강진·완도에 출사표를 던진 김영록 전남도 전 행정부지사가 14일 통합민주당에 입당, 본격적인 총선행보에 돌입, 강진과 완도 군수를 지내기도 했던 김 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“지역 발전의 새장을 열고,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정치에 매진하겠다”고 다짐.

이형석, 북구 장애인복지회 의견 청취



○...이형석 광주 북을 예비후보는 14일 북구 장애인복지회를 방문, 임원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, 이 후보는 “복지 예산 수요가 많아 자치구가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기에 무리가 있는 만큼 지역 중소기업과 기관 단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.

오형근, 광주 북갑 선거사무소 개소



○광주 북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오형근 성원회와 원장이 오는 15일 말바루 사거리 인근 동진빌딩 9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질 예정, 오 후보는 “비전과 전문성을 겸비한 후보, 그리고 혁신과 변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후보로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힘 쓰겠다”고 다짐.

서정성, 블로그 활용 젊은층 공략



○...서정성 광주 남구 예비후보가 14일 블로그와 미니 홈페이지를 열고 젊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표심 공략을 본격화, 서 후보는 “블로그 등을 활용하는 것은 젊은 유권자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것”이라며 “온라인 공간에서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소개할 계획”이라고 강조.

임흥채, “감동정치 펼칠 것” 서구를 출마



○...임흥채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14일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“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펼치겠다”면서 출마를 공식화, 지난 5·3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광주시당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임 후보는 “서로 통하는 사람! 젊은 친구 임흥채!”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“전문적 능력과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것”이라며 출마의 변을 피력.

이승재, “남구 명품도시로 만들어야”



○...이승재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4일 남구청을 방문, 황일봉 남구청장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지역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, 이 후보는 “남구를 환경과 사람이 하나되는 명품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”이라며 “이를 위해 백운 고가를 철거하고 백운·봉산·효천지구를 3대 거점으로 삼아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”고 지적. /홍형기기자 redplane@ 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광주·전남 이용가능성도

대산프리모 남녀가발

확장이전

가발

초슬림!!

세일 30%

최신상품 최다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

귀여운 분위와 안경을 놓여주는 경쾌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

대표전화 011-673-5000, 673-6022
광장미수화 011-607-5330

IMPERIAL

50%+ 추가 30~20%

임페리얼 1주년

이름을 위해 백운 고가를 철거하고 백운·봉산·효천지구를 3대 거점으로 삼아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

홍형기기자 redplane@ 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